

보도 일시	2023. 3. 20.(월) 09:00	배포 일시	2023. 3. 20.(월) 09:00
-------	-----------------------	-------	-----------------------

일 청소년 수학여행 재개...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

- 3. 21.~25. 일본 루테루학원 고등학교 학생 37명, 서울·전주 4박 5일 수학여행
- 코로나19 이후 첫 한국 수학여행, 일본인 방한 관광 증가 기대
- 문체부 청년 드림머스 환대 및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K-걸쳐 체험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된다.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등학교 학생 37명은 3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 21일(화)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드림머스’도 직접 참여해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재개를 응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미래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이며, 일본 청소년 37명의 한국 수학여행은 작은 출발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나가는 첫 시작이다.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특히, 한국은 K-팝, K-드라마 영향으로 일본 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다. 양국 미래세대가 서로 호감을 키우며 이해의 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가 중요한 동력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청소년의 수학여행 재개로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신호탄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되었다.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3월 16일(목)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일정에서도 일본 청소년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한옥마을을 찾아 함께 한복을 입고 둘러보며 가깝게 교류할 예정이다.

여행을 매개로 미래세대 교류 촉진, 여름방학에는 일본 교직원 초청 시범투어도 실시

문체부는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여행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노력한다. 일본 여행업계와 함께 일본 학교에서 관심 높은 주제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반기 일본 주요지역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직원 100여 명을 한국에 초청, 시범투어를 실시해 양국 간 수학여행을 촉진하는 다리를 놓을 예정이다.

과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협력의 기초가 국민 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인적 교류의 확충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큰 인기를 얻고,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음식, 뷰티까지 K-컬처 열풍이 나타나는 등 문화를 매개로 한 양국 국민들의 호감은 더욱 깊어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호감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를 더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유혜원 (044-203-2832)

